

GS칼텍스, 연세대에 산학협력관 건립

GS칼텍스는 연세대와 신촌 부지에 GS산학협력관(가칭)을 건립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12월 15일 발표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GS칼텍스는 2007년까지 지상 5층, 연건평 1400평의 산학협력관을 연세대에 건축해 기부하고 연구장치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산학협력관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GS칼텍스와 산학협동 연구·교육을 실시한다.

GS칼텍스는 산학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세대에 산학협력관을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화학저널 2005/12/16>